



대덕라이프 QR



대덕구 카카오톡 채널 QR

대덕 라이프

튼튼 대덕,
주민이 중심입니다



대덕구의회는 사망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스스로 의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아직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뿐입니다. 선거 때는 모두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민보다 자리가 먼저라면, 그 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대덕구의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그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이미 확보한 국·시비 사업도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위탁 업체 직원들의 급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

니다. 의회 파행의 피해를 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월급날을 기다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월급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관 대출과 구의 지급보증을 비롯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덕구는 이번 파행으로 벌어진 문제들을 수습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부터 시설 운영, 지연된 사업까지 하나씩 챙기겠습니다. 구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최대한 막겠습니다.

대덕구정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덕구청장 김 찬 술

- 02 김찬술 대덕구청장 취임 100일 인터뷰
- 03 사진으로 보는 민선9기 이야기
- 05 5대 핵심 프로젝트 / 5대 규정 방향
- 06 대덕 소식

- 07 십자말풀이, 대덕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 08 대덕 맛집
- 09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 10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우리동네
- 11 [단체 인터뷰] 대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12 대덕톡톡



국민의 일상을 살피며, 대덕의 내일을 그린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의 취임 100일

10월 8일,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현안을 살피며 민선9기 대덕구정의 방향을 다져온 시간이다. 앞으로 대덕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취임 100일을 앞둔 김찬술 구청장에게 지난 시간의 소회와 주요 정책,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구청장이 되고 나니 하루하루 결정해야 할 일도 많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해야 할 일도 더 많이 보였습니다.

선거 때는 주민들께 대덕을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약속드렸다면, 지금은 그 약속을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주요 현안을 다시 살피고 구민과 약속한 정책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직 무엇을 이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제대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취임 후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역시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보는 것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다릅니다. 현장에 가야 보이는 문제도 있고,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자주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행정도 제대로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에는 오래 기다려온 현안도 있고 당장 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고, 필요한 일부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Q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옮겨보니 어떻습니까?

A 공약을 실제 행정에 옮기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50대 역점사업을 넘겨받은 뒤 각 부서에서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재 5대 분야 47개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현실에 맞게 내용이나 방법을 조정한 사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취지를 지키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생각했던 방법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하나씩 실행계획을 만들어가겠습니다.

Q 구정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 원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원칙과 실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실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부터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찾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결국 대덕과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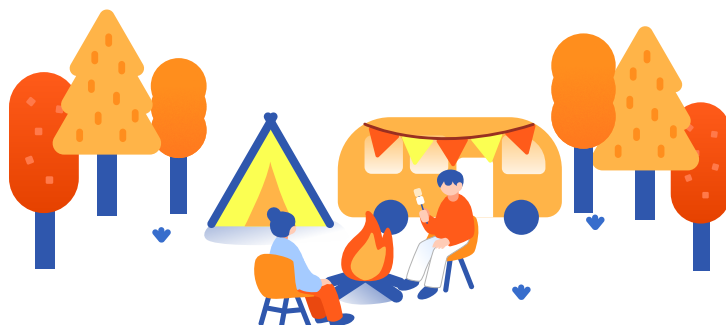
Q 민선9기 대덕구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A 대덕에는 주거와 지역경제, 교통, 교육, 돌봄, 안전, 문화·관광까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행정 지원과 갈등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곡산과 대청호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 그치지 않고 머물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민선9기 공약에도 1인 가구 생활 지원, 의료·돌봄 통합 지원, 고독사 예방, 어린이 통학 안전 등 생활과 가까운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와 돌봄, 교육, 안전 등 구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들도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Q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중요할 텐데요.

A 그렇습니다.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어르신이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행정입니다.

민선9기 공약에도 1인 가구 생활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고독사 예방, 어린이 통학안전 등 생활과 가까운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활성화, 출산과 양육 지원 등 지역경제와 생활에 직접 닿는 정책들도 실현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전보다 조금 편해졌다”, “행정이 내 생활을 살피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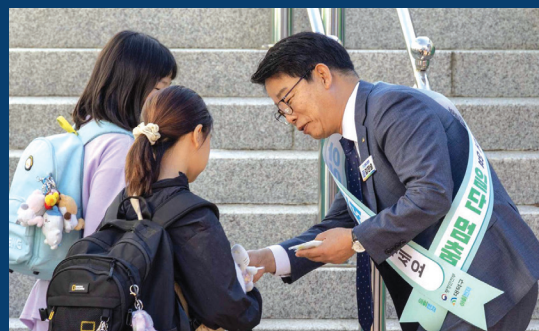
A 지난 100일 동안 참 많은 구민을 만났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며 잘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오래된 불편을 꼭 해결해 달라고 당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바람을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민께서 건넨 한마디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는 믿음, 어려울 때 행정이 곁에 있다는 믿음만큼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에게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덕에 사는 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든든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께서 보내주시는 믿음과 기대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 걷어가는 든든대덕 사진으로 보는 민선9기 이야기

민선9기 출범 이후 100일의 시간. 그 순간을 사진으로 돌아보자.



7.13



12개 동 타운홀미팅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선 9기 동 타운홀미팅을 추진했다. 오정동과 대화동을 시작으로 12개 동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 취임

김찬술 구청장은 취임 7월 1일 새벽 송촌동 일원에서 환경관리요원들과 함께 대형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에 직접 참여하며, 민선 9기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취임식에서 취임사와 비전을 밝히며 민선9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7.29



신탄진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거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개관식을 열었다.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과 공간 지원을 비롯해 창업 준비부터 성장 단계까지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8. 4



대덕미래전략전담팀(TF) 출범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덕미래전략전담팀(TF)'를 출범,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대덕미래전략TF 운영 방향과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8. 8~21



2026년 을지연습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을지연습'을 완료했다.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물자 공급 차질을 가정한 비상 식량 체험 및 실제훈련 등을 통해 비상 대비 태세를 갖췄다.



구민과 함께 걷어가는 든든대덕
사진으로 보는 민선9기 이야기

9. 4~5 / 9. 11~12



2026 대덕든든 페스티벌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오정동과 신탄진동에서 '2026 대덕든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오정동 약 4000명, 신탄진동 약 6000명 등 약 1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며, 점포도 오정동 19곳, 신탄진동 33곳 등 모두 52곳이 함께했다.



9. 16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중리전통시장과 법동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했으며, 구매한 물품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우리 지역의 이웃과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눴다.

8. 27



우수 정책 현장 방문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공평도시유적전시관과 강서구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화곡점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과 운영 이후 나타난 문제까지 사전에 살펴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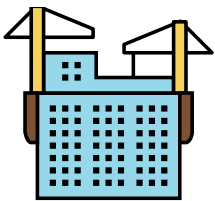


구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하는 대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민선9기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꼽았다.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특히 현재의 재정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 체감도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했다.

I 민선9기, 대덕의 미래를 여는 5대 핵심 프로젝트 I

01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교육, 맞춤형 컨설팅,
갈등 조정 등
행정 지원 강화

02



계족산 관광 활성화

항토티길을 중심으로
체험·휴식·생활체육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03



대덕형 온통대전 2.0

대덕구 내 소비가
지역경제로 다시 순환
하도록 지역 소비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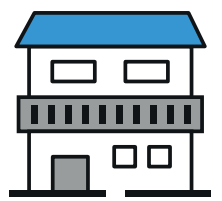
04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대전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운영모델을
검토하고 의료·돌봄
연계 기반 마련

05



노후 장기 방치 건축물 활용

활용 가치가 높은 시설을
문화·체육·교육·복지
기능을 갖춘 생활SOC
공간으로 재생

I 5대 구정방향으로 만드는 대덕의 변화 I

구민의 일상부터 대덕의 미래까지, 5대 구정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대덕

누구나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고, 삶의 여건에
따라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생활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여성 참여예산 | 대덕올케어 통합돌봄 |
고독사 예방 | 출산·양육 지원 | 여성 1인 가구 지원



안전한 일상이 지켜지는 대덕

기후위기와 생활 속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AI 기반 자원순환 | 폭염 대응 안전인프라 |
스마트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 탄소중립



미래가 열리는 풍요로운 대덕

도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대덕을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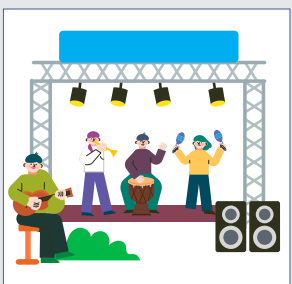
재개발·재건축 | 신탄진 복합환승거점 |
AI·SW 교육 | 지역화폐 활성화 |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와 예술이 품격있는 대덕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관광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시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역사문화자원 활성화 | 문화·예술 플랫폼 |
계족산·대청호 관광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대덕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더 가까이 반영하고,
현장에서 듣고 신속하게 답하는 주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합니다.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 | 동장 공모제 |
주민참여예산 | 문자 응답 행정 | AI 주민참여



가을 정취 속 대청호를 만나다 ‘2026 대덕대청호물결축제’ 개최

10월 23~25일 대청공원 일원서 개최... 23~24일 뮤직페스티벌 열려
가수 린·정동하·너드커넥션·이무진 등 화려한 무대 꾸며
25일 든든노래자랑 결선 진행... 피크닉·패밀리존 등 다양한 공간 조성 ‘눈길’
19일부터 대청호지역탐험·대청호가을산책 스탬프 등 부대 프로그램 운영도

대덕구는 10월 23~25일 3일간 대청공원 일원에서 ‘2026 대덕대청호물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대덕대청호물결축제는 대청호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음악과 피크닉, 가족 체험,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축제장은 동편광장 ‘뮤페존’, 중앙광장 ‘피크닉존’, 서편광장 ‘패밀리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동편광장 뮤페존은 메인무대를 중심으로 뮤직페스티벌과 청년·직장인 밴드 사전공연, 먹거리존, 플리마켓, 홍보·체험 부스 등이 마련되는 주 행사장이다. 10월 23일과 24일에는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뮤직페스티벌과 청년·직장인 밴드 공연

이 펼쳐지며, 24일에는 개막식과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광장 피크닉존은 감성조명과 포토존을 활용해 피크닉 분위기를 연출하고, 숲속 힐링 쉼터를 조성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서편광장 패밀리존에는 어린이와 반려견 동반자, 캠핑족 등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키즈존에서는 놀이터와 오락실 등을 운영하며, 10월 24일에는 버블쇼와 가족뮤지컬 등 어린이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텐트존도 조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대덕구 상품과 식품을 홍보·전시하는 기업홍



보관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든든노래자랑’ 결선이 열릴 예정이다. 든든노래자랑은 10월 중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오르며, 결선은 대청공원 동편광장에서 진행된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대청호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음악, 휴식, 가족 체험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과 방문객들이 대청공원에서 가을의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회계·세무 상담 ‘우리동네 회계사’ 운영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10월 1일부터 권역별 전문상담 제공...
주민·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대덕구가 회계·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와 ‘우리동네 회계사’ 무료 회계·세무·경영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공인회계사의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생활속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덕구는 주민과 소상공인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물 제작, 대면상담 장소 제공 등을 맡는다.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 회계·세무·경영 분야 상담을 제공하고 전용 전화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회계사’는 10월 1일부터 운영되며, 대덕구 내 상담 권역은 5개로 구분된다. 권역은 △오정동·대화동 △회덕동·덕암동·목상동 △비래동·중리동 △송촌동·법1동·법2동 △신탄진동·석봉동으로 나뉘며, 주민과 소상공인은 각 권역에 지정된 회계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대덕구치매안심센터, 2026년 치매관리시행계획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20곳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폐지·인공지능 케어콜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사업 ‘호평’

대덕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치매관리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덕구는 치매관리사업의 성과와 개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시행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치매 환자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추진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대덕구치매안심센터는 광역 자치구 최초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안부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케어콜’을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바로 잡습니다

※대덕라이프 9월호 8-9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가까운 가을 나들이 명소 6곳’에 소개된 동춘당 안내 내용에서 동춘당이 1643년 건립이 아닌 ‘1649년 이건’임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대덕라이프 9월호 십자말풀이 세로 3번 문제를 잘못 게재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명사, 손수레 따위에 네 기둥을 세우고 포장을 씌워 만든 이동식 간이주점. 주로 밤에 한길가나 공터에서 국수, 소주, 안주 따위를 판다.’로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지면 제작 및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덕라이프 2026년 10월호(261호)
십자말풀이 정답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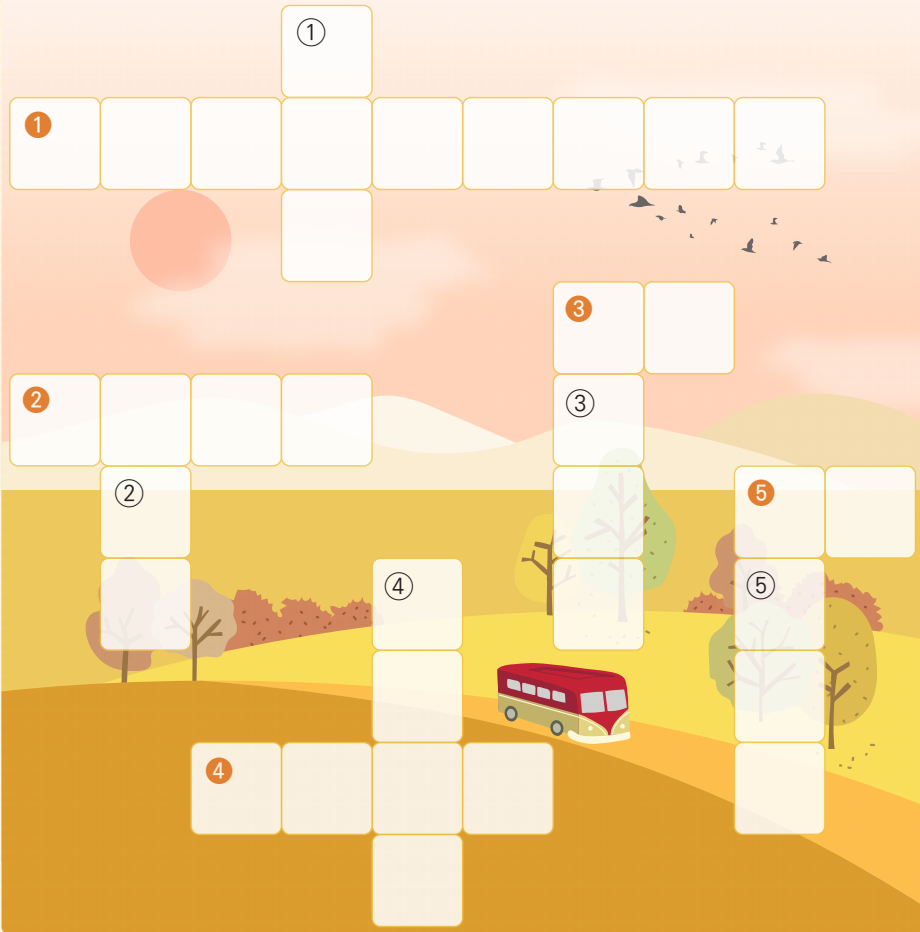
접수기간 2026년 10월 1일(목) 오전 9시 ~
10월 21일(수) 오후 11시 30분까지

참여방법 십자말풀이 정답을 작성하여 제출(1인 1회)

당첨자 발표 개별 문자 안내

정답을 맞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립니다.

정답 제출 이후에는 답안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라이프 십자말풀이 이벤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취득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당첨 및 선정 확인 등 이벤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및 선정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가 종료된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 이벤트 당첨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5. 상품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오류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대덕구 미디어홍보과(☎042-608-6606)



가로퀴즈

- 1 10월 23~25일 대청호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피크닉, 가족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뮤직페스티벌이 함께 열리는 이 축제의 이름은? 힌트 : 대덕라이프 6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2 우리나라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정한 날. 1956년에 제정 하였으며, 10월 1일이다.
- 3 명사,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임. 또는 거두어들인 농작물.
- 4 명사, 단풍이 든 산이나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즐김. 또는 그런 일. 힌트 : 올 가을에는 친구들과 설악산으로 ○○○○를 가 기로 했다.
- 5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자전거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 대여 공공자전거 서비스의 이름은?

세로퀴즈

- 1 명사, 텔레비전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이 시청되고 있는 정도. 상업 방송국에서는 광고 요금의 결정이나 광고 효과 측정에 중요한 요소 가 된다. 힌트 : 이번 야구 경기 중계는 최고의 ○○○○를 기록했다.
- 2 명사, 끼니 외에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군음식을 먹는 일.
- 3 명사,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알아 맞히는 놀이. 힌트 : 그 사건은 영원한 ○○○○로 남아 있다.
- 4 명사, 소꿉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놀이.
- 5 명사,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이나 물건을 담아서 후세에 온전히 전 할 목적으로 고안한 용기. 대개 땅속에 묻어 둔다.

대덕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대전 대덕구는 계족산, 대청호 등 청정 자연환경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한발 정신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대덕의 역사에 새겨진 위대한 인물들의 삶과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대덕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보고자 한다. 역사인물은 가나다순으로 소개된다. <편집자주>

13 | 이시직(李時稷)

이시직은 조선 중기의 문관이자 충신으로, 호는 죽창(竹窓), 본관은 연안이다. 연성부원군 이석형의 6대손이자 철방 이빈의 아들이다. 연안이씨가 회덕과 인연을 맺은 것은 송유(宋維)의 증손인 송여해(宋여해)가 이석형의 사위가 되면서부터다. 이후 이시직의 조부 이정현이 송준길의 증조부인 송세영의 사위가 되면서 두 가문은 더욱 가까워졌고, 이시직도 송촌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시직은 조호익과 김장생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1623년 별제가 되었다. 이듬해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를 공주까지 호종했으며, 이후 정언·장령 등을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들어갔으나 성이 함락되자, 회덕 출신의 사복시 주부 송시영과 함께 죽음으로 절의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송시영이 먼저 자결하자 그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 지낸 뒤, 가족에게 자신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도록 당부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생을 마쳤다. 당시 나이 66세였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글에는 “살신성인하니 땅을 굽어서나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죽음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은 선비정신을 보여준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목(忠穆)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강화 충렬사와 회덕 송헌서원에 배향되었다. 1638년 충신정문이 내려졌고, 그 유적이 현재 대덕구 송촌동에 남아 있다. <대덕문화원 참고>



한결같은 국밥 맛을 위해 매일 살피는 것들 송촌동 '유강순대국밥'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국물과 건더기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대덕구 송촌동에 자리한 '유강순대국밥(대표 류지민)'은 좋은 순대를 찾는 일부터 매일 새로 담그는 밀반찬까지, 익숙한 국밥 한 그릇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살피는 곳이다.

류지민 대표가 유강순대국밥을 창업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전국의 순대국밥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어떤 순대를 사용하는지, 맛은 어떤지 살피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대전에서 깨끗하고 맛있는 순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재료를 들여오고 있다.

창업 전부터 이어온 재료에 대한 기준은 가게를 운영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류 대표는 매일 아침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식재료를 직접 고른다. 그날그날 상태가 좋은 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준비하며 음식의 기본을 챙긴다.

밀반찬 역시 직접 준비한다. 배추겉절이는 하루에도 3~4차례씩 새로 담가 아삭하고 신선한 맛을 유지한다. 깍두기는 무의 상태에 따라 한 번에 4~10박스씩 구매해 직접 담그고, 알맞게 숙성해 국밥과 함께 내놓는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는 듯하지만, 재료의 상태에 따라 양과 시기를 조절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은 담백하고 구수한 국물에 순대와 고기를 넉넉히 담아낸다. 순대국밥 외에도 소머리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야채순대볶음에는 오징어를 함께 넣어 쫄깃한 식감과 풍미를 더했다. 익숙한 메뉴에 재료의 조합을 달리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메뉴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의 인연도 류 대표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운영의 즐거움이다. 오랫동안 찾아오던 손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들르기도 하고, 그동안 잘 먹었다며 선물을 건네는 경우도 있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찾았던 손님이 어느새 가게의 오랜 인연이 되어가는 순간이다.

류지민 대표는 "저희 가게가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하고, 잘 먹었다는 마음으로 가게를 나설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고, 겉절이를 담고, 깍두기가 알맞게 익었는지 살피는 일.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닐지라도 이런 일상이 쌓여 한결같은 맛을 만든다. 송촌동 유강순대국밥은 오늘도 익숙한 국밥 한 그릇을 변함없이 준비하고 있다.



- 📍 대전 대덕구 송촌북로 44 1층
- 🕒 순대국밥 9000원, 순대국밥(특) 10000원, 수육국밥 10000원, 수육국밥(특) 11000원, 곰창순대전골 11000원(2인 이상 주문), 야채순대볶음 12000원(2인 이상 주문)
- 🕒 10:00~22:00
- 📞 휴무일 연중무휴



-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42
- 🕒 이든빵 2800원, 크림치즈베베 4000원, 단호박찰빵 4500원, 소금빵 2100원, 메론빵 3500원
- 🕒 09:00~21:00
- 📞 휴무일 매주 일요일

빵은 밀가루와 물, 효모 등 기본 재료가 만나 발효와 숙성의 시간을 거쳐 하나의 맛으로 완성된다. 대덕구 와동에 자리한 '이든베이커리(대표 김광수·김경자)'는 좋은 재료와 정확한

공정을 바탕으로 빵 본연의 맛을 살리는 곳이다. 지난 3월 11일 문을 연 이든베이커리는 김광수 사장이 30년에 가까운 제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한 빵집이다. 서울에서 10여 년 동안 기술을 익힌 뒤 대전으로 내려와 법동 선비마을에서 처음 가게를 열었고, 이후 유성구 전민동에서도 8년가량 운영했다. 현재는 아내 김경자 사장이 가게를 함께 지키고, 아들 김정민 씨가 매장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이든베이커리의 빵은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정확한 공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발효가 필요한 빵에는 직접 배양한 천연 발효종을 사용하며, 현재는 호밀 발효종과 건포도 발효종을 중심으로 충분한 발효와 숙성 시간을 지킨다. 보기 좋은 모양보다 한입 먹었을 때의 맛과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대표 메뉴는 '이든빵'이다. 양파와 여러 채소를 잘게 다져 넣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 '크림치즈 베베'는 레몬즙을 넣은 반죽에 전처리한 건조 열대

오래된 빵의 기본에 정성을 더하다 와동 '이든베이커리'

과일과 크림치즈를 더해 부드럽고 풍성한 맛을 낸다. '단호박찰빵'은 직접 찐 단호박과 달걀, 우유로 반죽하고 찹쌀과 단호박 분말, 완두배기 등을 넣어 단호박의 향과 쫄깃한 식감을 살렸다.

각기 다른 빵을 만들지만 이든베이커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다. 가게에 방문하던 한 손님은 "평소 소화 문제로 빵을 잘 먹지 않는데, 이곳의 빵을 먹으면 속이 참 편해서 좋다. 빵을 먹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빵을 먹고도 속이 불편하지 않은 빵을 만들고 싶었던 김광수 사장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이다. 김광수 사장은 "좋은 재료로 정확한 공정을 거치면 옛날 빵이라도 맛있어요. 제가 만든 빵을 가져가서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지는 게 제일 좋죠"라고 말했다.

이든베이커리는 올해 대전 빵 축제에도 참여해 더 많은 시민에게 빵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에서 인지도를 쌓는 빵집으로 성장하며 누구나 부담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더 다양하게 선보이는 것이 가족의 바람이다.

30년에 가까운 제빵 경험과 가족의 손길이 더해진 이든베이커리. 오늘도 와동에서는 기본과 정성을 지켜 만든 빵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대덕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진료, 예방접종, 건강 증진, 정신 건강, 모자보건, 치매 관리 등 구민의 생애주기와 건강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부터 감염병 대응, 의료비 지원, 건강 취약계층 방문 관리까지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10월호 대덕라이프에서는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정책과를 중심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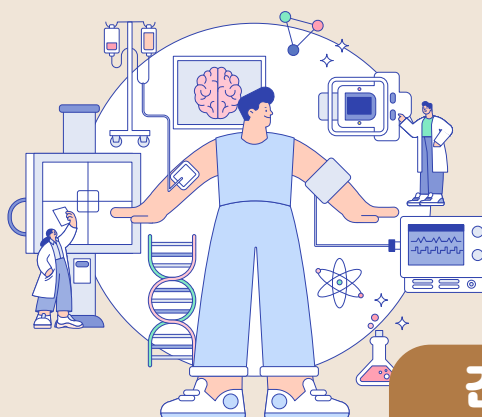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 조직·복무, 청사·차량 관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장동보건진료소 운영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기반을 지원한다.

감염병관리팀 법정감염병 감시·관리, 역학조사, 결핵 관리, 방역·소독 사업 등을 담당한다. 감염취약시설 관리와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한다.

의약팀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관련 업소 등을 관리·점검하고 응급의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등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업무를 추진한다.

보건관리팀 보건소 진료와 검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국가건강검진을 비롯해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주민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고 금연,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재가암 관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마음건강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정신질환자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자살 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주민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담당한다.

가정보건팀 임신·출산·영유아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담당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영양플러스, 국가예방접종 등 가족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등록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인지재활·치매예방 프로그램, 가족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및 실종예방사업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한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참여형 건강관리 거점으로 만성질환 예방, 비만·영양·신체활동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상담실, 걷기활동과 건강동아리 등 생활밀착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부주민건강센터 스마트 건강측정실과 헬스케어존, 건강상담·교육, 구강보건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을 운영한다.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어린이 건강키움 놀이터를 통해 어린이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START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우리동네

01 | 오정동

▲오정동복지만드레(회장 김영재) 저소득 홀몸 50가구에 추석맞이 음식 전달
▲도원참사랑나눔(대표이사 권경미) 저소득층 50가구에 추석맞이 음식 전달
▲국제후원클럽(총재 백은기) 저소득 20가구 대상 참치캔·식용유·전병 선물세트 전달
▲그린트리봉사단(대표 최주율) 저소득층에 라면 10박스 기탁
▲자유총연맹(회장 송기숙) 저소득층 20가구에 건어물 세트 기탁
▲오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재) 저소득층 25가구에 명절 식품 키트 전달
▲오정동체육회(회장 김경모) 현혈증 20개 기부
▲오정동체육회(회장 김경모) 저소득층 가구에 백미(10kg) 50포 기탁
▲한마음플랫폼봉사단(회장 노인숙) 저소득층 30가구 대상 고추장 전달
▲새마을지도자오정동부녀회(회장 이명선) 취약계층 대상 이동식 이불 빨래 봉사
▲오정그릇도매(대표 이진원) 경로당에 식기 세트 기탁
▲도원참사랑나눔(대표이사 권경미)·좋은마을만들기협동조합(대표이사 이해주) 국가유공자 대상 간식꾸러미 60개 기탁



▲엄정형외과의원(원장 엄의용) 저소득 학생 2명에 장학금 20만원 후원
▲오정동 강동집(대표 박승화) 저소득 3가구에 매월 반찬 후원
▲이서사랑(회장 김정덕) 저소득 가구에 매월 라면 10박스 후원
▲사랑의사다리밴드(회장 이정제) 저소득층 대상 매월 밀반찬 5가구 후원

02 | 대화동

▲대화동통장협의회(회장 최인목) 취약계층 47가구에 백미(10kg) 4포 후원
▲성공식품(대표 나현석) 경로당 2곳에 대용량 전기밥솥 2개 후원
▲대화동새마을문고회(회장 정숙희) 어르신 150여 명 잔치국수 봉사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이사장 이수철) 대화동새마을문고회 국수봉사에 떡·과일 후원
▲대화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전화용) 취약계층 30가구에 생필품 꾸러미 30박스(100만원 상당) 기탁
▲대화동복지만드레(회장 조영희) 취약계층 40가구에 밀반찬 전달
▲(주)윌로지스(대표 송용식) 취약계층 50가구에 계란 30구 100판 후원
▲대화동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순이) 홀몸 어르신 등 어르신 6가구 이불 13채 세탁 봉사
▲꽃통식당(대표 임귀수) 취약계층에 백미(10kg) 2포 및 컵라면 2박스 후원
▲왕손곰창(대표 심승수) 취약계층 6가구에 백미(10kg) 6포 후원
▲동명산업(대표 임용운) 이웃돕기 물품으로 라면(40개입) 8박스 기탁
▲천하제일사료(주)(대표 권천년) 경로당 8곳·다함께돌봄센터 등에 곰탕 4000개·만두 1000개(800만원 상당) 후원



▲대화동 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김영호) 취약계층 쌀 10kg 20포 후원
▲사랑의사다리밴드(리더 이정제) 저소득 6가구에 밀반찬 전달
▲대영금속공업(주)(대표 모성필) 취약계층 53가구에 생필품 선물세트(200만원 상당) 후원
▲대화동새마을문고회(회장 정숙희) 어르신 100여 명 대상 잔치국수 및 다과 대접
▲대화동기관장협의회(대전원명학교 원장 고은주, 하나은행 대화지점 지점장 김영태,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박원하,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 이사장 이수철,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원장 조용만, 대전대학교새마을금고 지점장 박정옥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착공식 기념 쌀 10kg 15포(60만원 상당) 기탁

03 | 회덕동

▲죽림정사(주지 창엄스님) 취약계층에 백미(10kg), 10포 지원
▲대한전기숙련기능인협회(회장 권대현) 주거취약계층 전기봉사 2가구



▲루나커피(사장 황용태) 저소득 가구에 라면 10박스 후원
▲장동감나무보리밥(사장 황순임) 저소득 가구에 라면 10박스 후원
▲하나님의교회(목사 송주원) 저소득가구에 식료품키트 20박스 후원
▲죽림정사(주지 창엄스님) 취약계층에 백미(10kg), 30포 지원
▲대전조차장역(역장 박현진) 취약계층에 김세트 30박스 지원
▲사랑의사다리밴드(리더 이정제) 취약계층에 밀반찬 4개 지원

04 | 비래동

▲사랑의사다리밴드(리더 이정제) 부자 가족 5세대에 밀반찬 후원
▲비래동새마을부녀회(회장 유재은) 어르신 300여 명에 초복 맞이 닭죽·수박 전달
▲(사)함께하는사랑방(대표 정유진) 저소득층 25세대에 식료품 키트 25박스 기탁
▲다대지식당(대표 한도선) 저소득층 이웃돕기 성금 20만원 기탁
▲비래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이완식) 취약계층 30세대에 생필품 꾸러미 30박스 기탁
▲비래동복지만드레(회장 임진천)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30세대에 삼계탕 전달
▲대양코아(대표 장세철) 저소득층, 어르신 등을 위한 캠페인도 50박스 기탁
▲(주)해피관리산업(대표 윤병식) 저소득층을 위한 삼계탕 30인분 기탁
▲비래동복지만드레(회장 임진천)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30세대에 밀반찬 전달
▲비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상수) 중증장애인 가정 10세대에 생활필수품 꾸러미, 반려식물 지원



05 | 송촌동

▲가온봉사단(회장 박미애) 저소득 취약계층에 밀반찬 40인분 후원

▲홍콩삼겹살(대표 정삼목) 취약계층에 양곡 10kg 4포 후원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송충돈위원회(회장 이순자)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반찬 후원



▲가온봉사단(회장 박미애) 저소득 취약계층에 밀반찬 40인분 후원
▲송촌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수지)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반찬 후원
▲현숙소라우령쌍발(대표 서현숙) 하북교성불회 선비마을(아)2단지 경로당 어르신 50명에 점심식사 후원
▲송촌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원갑순) 관내 취약계층 37가구에 영양밥키트 후원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저소득 취약계층 37가구에 온누리상품권 60만원 기탁

06 | 중리동

▲중리동복지만드레(회장 김길용) 취약계층 30가구에 밀반찬 나눔
▲관내 주민(조OO) 호우 피해 특별 모금 10만원 기부
▲관내 주민(최OO)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50kg 지원
▲중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명숙)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배추김치 50가구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중리동위원회(회장 신대현) 취약계층 대상 식료품키트 20박스 후원



▲사랑의사다리밴드(리더 이정제) 저소득 5가구에 밀반찬 전달
▲중리동복지만드레(회장 김길용) 취약계층 30가구에 밀반찬 나눔
▲루엔차이(대표 이흥태) 관내 경로당 어르신 100여 명에 짜장면 지원
▲주향감리교회(목사 박형민) 저소득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총 500만원(인당 50만원) 지원

07 | 법1동

▲법1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이화영)·지도자협의회(회장 황규현) 법1동 7개 경로당 어르신 400명에 삼계탕 후원



▲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채정훈(솔고집 대전중리점 대표) 매월 취약계층 아동 8명에 계란찜 삼겹구이 등 식사 후원
▲대전두드림MJF라이온스클럽(회장 김창환)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12가구에 현관 방충망 설치 봉사
▲한마음플랫폼(회장 노인숙) 저소득 30가구에 고추장 후원
▲사랑의사다리밴드(회장 이정제) 저소득 5가구에 밀반찬 전달
▲법동e편한바른어린이집(원장 하은하) 추석 맞이 저소득 어르신 50가구에 송편, 한과 등 전달
▲법1동 복지만드레(회장 김정화) 저소득 퇴원환자 5명에 식료품 키트 전달
▲법1동 복지만드레(회장 김정화) 저

속 30가구에 밀반찬 후원
▲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법영) 저소득 20가구에 추석 밀키트 후원

08 | 법2동

▲선비마을1단지 아파트 경로당(회장 소옥례) 이웃돕기 성금 70만원 기탁
▲조창숙 법2동 복지만드레 감사 이웃돕기 성금 20만원 기탁
▲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신) 및 복지만드레(회장 김미자)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40세대 건강 반찬 후원
▲디딤돌봉사회(회장 김지봉) 주거환경 개선 봉사
▲주향감리교회 11여선교회(회장 김민정) 이웃돕기 성금 20만원 기탁
▲마디편한한신경외과(대표 권혁민) 선품기 25대 기탁
▲법2동 복지만드레(회장 김미자)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40세대 건강 반찬 후원
▲솔로몬지역아동센터(센터장 신미숙) 이웃돕기 성금 18만원 기탁
▲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서봉례) 이웃돕기 성금 30만원 기탁
▲법2동 복지만드레(회장 김미자) 저소득 40가정 반찬 후원



09 | 신탄진동

▲품미식당(대표 신진경) 저소득가구에 밀반찬 기탁
▲11시들쌈밥(대표 이규빈) 도시락 기탁
▲소망루터교회(목사 남상준) 밀반찬 나눔 봉사
▲까치연탄(대표 변희섭) 백미 20kg 기탁
▲주민 정성현 백미 20kg 기탁
▲신탄진원(사찰 신탄진원) 백미 20kg 기탁
▲통근갈비(대표 오경희) 백미 20kg 기탁
▲일경상사(대표 김성훈) 현금 100만원 기탁
▲대전호민교회(대표 서태성) 현금 10만원 기탁
▲김근섭님(신탄진동 주민) 현금 10만원 기탁
▲신탄제일신협 본점(이사장 노회경) 저소득가구 대상 열무김치 100박스 전달
▲맞선술밭갈비(대표 박순주) 저소득 가구 대상 소찌 70팩 전달



▲파리바게트 신탄진점(대표 유호근) 저소득가구 대상 빵 후원

10 | 석봉동

▲김기배님(석봉동 주민) 어려운 이웃 대상 매월 1만원 기탁
▲복지만드레(회장 김숙자) 어려운 이웃 35세대에 밀반찬 전달 및 안부 확인



▲방글은나라(대표 최명숙) 저소득 가정 대상 빵(53만원 상당) 후원
▲방뜨레베이커리(대표 송은영) 저소득

가정 대상 빵(22만원 상당) 후원
▲석봉동골목형상점가변영회(회장 백송자) 식료품 주 1회 월 50만원 상당 후원
▲BHC치킨 신탄진점(대표 이영순) 저소득 가정 대상 치킨(11만원 상당) 후원
▲(주)엔지니어링(대표 나경숙) 석봉동복지만드레에 100만원 기탁
▲(주)오백화물(대표 김우식) 어려운 이웃 대상 백미(10kg) 13포 기탁
▲감상배(방위협회의 총무이사) 어려운 이웃 대상 20만원 기탁
▲사랑의사다리밴드(리더 이정제) 저소득 가정 대상 밀반찬 5세트 후원
▲BHC치킨 신탄진점(대표 이영순) 저소득 가정 대상 11만원 상당 치킨 후원
▲석봉동골목형상점가변영회(회장 백송자) 식료품 주 1회 월 50만원 상당 후원
▲원조설악추어탕(대표 이상한) 저소득 가정 대상 30만원 상당 추어탕 후원

11 | 덕암동

▲오늘의방집(사장 심병주) 저소득 취약계층 위해 100만원 상당 빵 후원
▲계룡버스 한울타리봉사회 저소득 어려운 이웃 대상 백미 4kg 10포 후원
▲사랑의사다리밴드(대표 이정제) 저소득 어려운 이웃 대상 밀반찬 6세트 후원
▲복지만드레(회장 장길원) 8월, 9월 저소득 어르신 50명 대상 밀반찬 나눔
▲별당이네 식당(회장 전병준) 늬름대덕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80인분 식사 제공
▲예스케어대전요양원(원장 조민)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매월 현금 30만원 기탁
▲정구화님(덕암동 주민)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현금 10만원 기탁
▲김형열님(덕암동 주민) 소년소녀가정에 현금 10만원 기탁
▲도미자님(덕암동 주민)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현금 100만원 기탁
▲이태정님(덕암동 주민)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현금 50만원 기탁
▲새마을지도자덕암동부녀회(회장 민영숙) 추석맞이 명절 반찬 10가구 지원
▲복지만드레(회장 장길원) 취약가구 추석맞이 밀반찬 50세대 후원



12 | 목상동

▲김이박 부대찌개(대표 김자영)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주 6인분 후원
▲사랑의 사다리밴드(리더 이정제) 매월 취약계층에 밀반찬 5세트 지원
▲한솔제지 대전·신탄진공장 1% 사랑나눔 봉사단 추석맞이 과일선물세트 20가구 나눔
▲(주)올코리아(대표 심대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목상동지사협(회장 권양우) 문화활동 참가회비가 적은 취약계층 아이들과 함께 영화관람을 통해 아동 대상 문화활동 지원



▲목상동복지만드레(회장 최승표)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30세대에 회원들이 직접 만든 밀반찬 전달

다시, 대화가 시작됐다 대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인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지역의 특색 살린 사업·주민 참여로 지속 가능한 마을을 꿈꿔

황선업 이사장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이른바 ‘벌집’과 ‘닭장 집’이 한 울타리에 스무 집, 서른 집씩 다닥다닥 붙어 있던 시절. 손수레 하나 겨우 지나갈 좁은 미로 골목마다 연탄가스 배출기가 삐져나왔고, 공단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뻘뻘하게 모여 살던 곳. 1980년대 황선업 대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처음 마주했던 대화동의 풍경이다.

묵묵히 땀 흘리는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뜻 하나로 대화동에 들어온 지 어느덧 40여 년. 30쪽짜리 설문지를 들고 한 달 내내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의 형편을 살폈던 청년 시절부터, 노동자 야학과 탁아소, 공부방을 열고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의 법 제정까지 끌어낸 그 모든 세월이 대화동 골목에 오롯이 새겨져 있다.

황 이사장이 오랜 시간 주민들과 함께하며 배운 것은 마을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대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밑바탕이 됐다.

세월이 흘러 공단 배후지의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을 때, 황 이사장과 주민들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단순히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운영하고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19년 주민협의회로 출발해 2023년 12월 정식 인가를 받은 ‘대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지난 40여 년간 함께 울고 웃으며 동네를 지켜온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와 소통을 거듭하며 민주적으로 뜻을 모으는 법을 체득해 온 시간의 결실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한이 끝나면 지원금이 멈춘다. 시설을 짓는 예산이 남아 있어도,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고 주민 공동체를 이어가는 몫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대화마을조합이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에 힘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립을 향한 고민은 뜻밖의 로컬 상품들로 이어졌다. 지역 로스터리와 협업해 대덕의 대표 명소를 이름에 담은 ‘대청호커피’를 선보였고, 이어 택배 포장용 ‘충청도 사투리 박스테이프’와 마을 손수건 등을 내놓았다. 유명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온 일상의 말씨와 문화에서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상품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학습하는 살아있는 배움터인 셈이다.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마을의 자원으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조합의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인구는 2만여 명에서 5000여 명 선으로 줄었고, 주민 셋 중 하나는 어르신일 만큼 고령화도 깊어졌다. 하지만 황 이사장은 낙담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네를 지켜온 이웃들 그리고 새롭게 터를 잡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까지 한데 어우러지는 마을을 꿈꾼다. 그 진가는 마을축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남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판에 박힌 축제 대신, 주민들이 직접 기획해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열고 베트남 쌀국수와 시리아 전통 음식이 어우러지는 진짜 주민 축제를 열어왔다.

올해 지원 예산이 끊겨 축제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을 때도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공방, 이웃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작아도 우리 손으로 축제를 이어가자’며 뜻을 모았다. 외부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마을의 진짜 힘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홀로서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라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골목과 사람이 서로 마음을 잇는 동네, 대화동. 주민들의 오랜 숨결과 지혜가 깃든 대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발걸음은 오늘도 묵묵히 내일을 향하고 있다.



마음이득 살아답고 달리지!

제25회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일시 2026년 10월 18일(일) 07:00~13:00

장소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일원

종목 건강코스 5km, 미니코스 10km,
하프코스 21.0975km



문의 대덕구 체육회(☎042-934-8890)

2026년 제10회 장동계족산 코스모스축제 개최

일정 2026. 10. 10.(토) ~ 10. 11.(일)

장소 장동 만남공원 일원(대덕구 장동 353번지)

주요내용

- 개막식, 우리 농산물 비빔밥 퍼포먼스(보리): 10. 10.(토) 14:00~
- 농민이 직접 가꾼 코스모스 꽃길 산책 및 포토존 구성
- 대덕구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푸드트럭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주최·주관 대덕구

후원 장동경관농업추진위원회



문의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945)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검진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검진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무료**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0,000원 이하

- 건강보험가입자 중 상위 50% ▶**본인부담금 10%** (검진비 90% 지원)

암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기준 등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여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여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의 여성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

검진방법 전국 암 검진기관 병·의원 사전예약 필수, 신분증 지참

문의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042-608-5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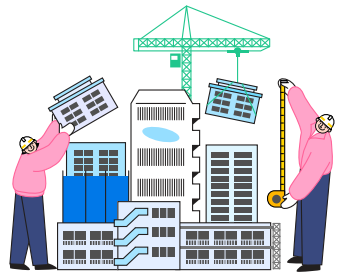
재개발·재건축사업

찾아가는 주민 기본교육

기간 2026. 9. 30. ~ 10. 7. / 4회 교육

대상 대덕구 정비사업 구역 관계자 등

일시/장소



구분	9. 30.(수) 13:30~17:30	10. 1.(목) 13:30~17:30	10. 2.(금) 13:30~17:30	10. 7.(수) 13:30~17:30
장소	청소년 어울림센터 강당	평생학습관 (석봉북합문문화센터 3층)	대덕문화원 공연장	

교육내용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유의사항 등

문의 대덕구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042-608-5942~5)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및 기간

대상	기간
75세 이상 (1951. 12. 31. 이전 출생)	2026년 10월 6일(화) ~ 2027년 4월 30일(금)
70~74세 (1952. 1. 1.~1956. 12. 31.출생)	2026년 10월 12일(월) ~ 2027년 4월 30일(금)
65~69세 (1957. 1. 1.~1961. 12. 31.출생)	2026년 10월 15일(목) ~ 2027년 4월 30일(금)

※ 65세 이상 어르신 중 면역저하자는 2026. 10. 6.(화)부터
접종 가능(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름)

장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2)

내집에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의료·요양·복지로 잇는 대덕올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안내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65세 미만 심한장애인(지체·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 거동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 분, 병원 퇴
원 후 가정 복귀자, 장기요양등급자, 등급외자, 판정대기자 등

핵심 서비스 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스마트돌봄 등

신청 및 이용절차 신청 → 돌봄필요도 조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 사업별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 등) 적용, 예산한도
내 지원

※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공적서비스 이용시 중복
적 성격의 서비스 제외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대덕구 통합돌봄과(☎042-608-6325)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돌봄통합지원팀(☎042-605-7381)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종합훈련입니다.

하반기 일정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